

# 광주 교육감의 '비리척결' 선서 왜?

## 장휘국 교육감 간부들 앞에서 "금품·향응 수수 않겠다"

### 취임 후 잇단 비위·비리 발생에 경중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이례적으로 교육청 고위 간부들 앞에서 비리척결 선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6일 열린 직속 기관장 월례회의에서 돌연 의자에서 일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교육수장으로서 비리척결을 다짐하는 '선서'이자, 실천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선언이었다.

장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교육철학에 따라 상생교육에만 전념하겠으며, 금품수수 행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관여하지 않고 비리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의 선언에는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조바심과 안타까운 심경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장 교육감이 지난해 11월8일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교육계의 비위·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청렴정책 의지가 오히려 희석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명절 때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된 데 이어 연초에는 정수기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목숨을 끊었다.

다른 인사는 고교 재직시 공사



장휘국 교육감

장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깨끗한 교직사회'에 최대 역점을 두고 기회있을 때마다 실천을 강조해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장 교육감의 '청렴선언'이 혼자만의 외침에 그칠지, 교육계의 새로운 바람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이이다.

연휴기자 penfoot@kwangju.co.kr

발주 관련 비위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교육청과 교장 등 5명을 공사 수의계약 비리의혹 등으로

# 석탄일 돌풍·천둥 동반 많은 비

9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11일까지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9일 중국 중부내륙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흐리고 오전에 남서해안지방부터 비(강수확률 60~80%)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전남·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8일 예보했다.

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이자 석가

탄신일인 10일 오후부터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번 비는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강우량은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이다.

또 9일 오전에 해안지방을 시작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라고 기상청 관계자는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 광주권의료관광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광주·전남지역 17개 주요 의료기관이 주축이 돼 최근 창립된 '광주권의료관광협회'가 지난 6일 200여명의 지역 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마다 프라자 광주호텔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확인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급증

## 광주 등 6건 발생 ... 보건당국 조사 나서

연간 1~2건이 보고될까 말까 하던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에 사는 산모 등 6명이 정체불명인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인해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이들은 주로 출산을 전후로 기침과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면서 동네 의원이나 지방의 병원 등에서 결핵, 폐부종 또는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출산 이후(일부 환자는 상태 악화로 재입원)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대형병원을 찾았고,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여성 환자 가운데 1명은 최근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인공 폐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A(39)씨는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월 초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3월 출산 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됐다. 동네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을 전전하던 A씨는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거쳐 지난달 중순 이 대형병원을 찾았고, 이곳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런 증상의 환자가 과거 연간 1~2명 보고된 적은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에 보고된 환자들이 대부분 출산 전의 임신부로 알려지자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보내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연합뉴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부모 절반 이상 참여

빠르면 올 2학기부터 학생 간 폭력 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빠르면 올 2학기 중 일선 초·중·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4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전국 1만1000여 초·중·고에서 주로 교감이나 교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이 학교내 학생 간의 폭행, 따돌림 등의 가해학생 처벌과 분쟁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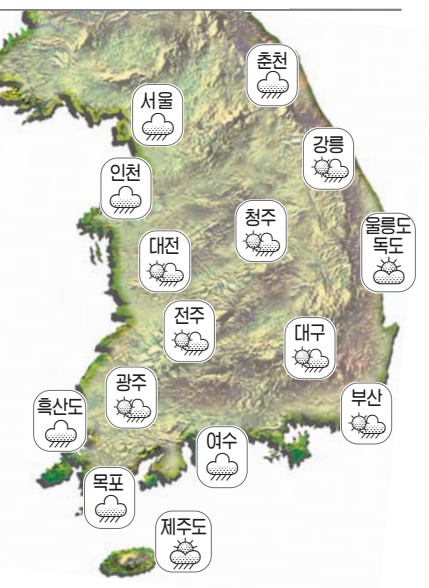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4분 해질 19시 24분 달돋이 10시 20분 달짐 --시--분

비 오는 월요일

오전에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     |       |        |
|-----|-------|--------|
| 광주  | 오후부터비 | 17/25℃ |
| 목포  | 흐리고비  | 15/22℃ |
| 여수  | 흐리고비  | 15/19℃ |
| 나주  | 오후부터비 | 16/25℃ |
| 완도  | 흐리고비  | 16/22℃ |
| 구례  | 오후부터비 | 15/25℃ |
| 해남  | 흐리고비  | 17/24℃ |
| 장흥  | 흐리고비  | 16/23℃ |
| 순천  | 오후부터비 | 16/25℃ |
| 영광  | 오후부터비 | 16/25℃ |
| 진도  | 흐리고비  | 16/23℃ |
| 전주  | 오후부터비 | 17/26℃ |
| 군산  | 오후부터비 | 16/25℃ |
| 남원  | 오후부터비 | 13/25℃ |
| 혁신도 | 흐리고비  | 13/17℃ |



| 바다        | 풍향   | 파고       | 지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꽃가루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1.5~2.5m | ☀     | 보통    | 경고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m | ☀     | 보통    | 낮음    |

| 바다        | 풍향   | 파고       | 미물 | 쌀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2.0~3.0m | 목포 | 06:02 11:20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2.0~4.0m | 여수 | 00:41 06:48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씨    | 10(화) | 11(수) | 12(목) | 13(금) | 14(토) | 15(일) |
|-------|-------|-------|-------|-------|-------|-------|
| 최저/최고 | 18/20 | 17/20 | 17/21 | 13/24 | 12/24 | 11/24 |

# 국립공원의 아생화

## 노랑·빨강색 꽃 피우는 요술나무

### (14) 병꽃나무

병꽃나무는 높이 2~3m 정도로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인공과에 속한다.

꽃은 노란색에서 점차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포기에서 두 가지 색깔의 꽃을 모두 볼 수 있다. 병꽃나무는 꽃 모양이 병처럼 생겨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의 특산식물로 비교적 흔한 나무로



아무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산지를 단장할 때 많이 심었다. (백색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보려면?

LOSE VS WIN

일반홈페이지 vs 모바일홈페이지

Tip.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컴퓨터 해상도에 맞게 제작되어 스마트폰에서는 컨텐츠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나,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맞게 제작하여 편리함과 시인성을 극대화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문의 062-514-1144**

모바일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홈페이지란? 모바일 홈페이지에 특화된 UI설계 및 디자인을 구현하여 QR코드 연동으로 쉽고 간편하게 소비자가 고객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근 할 수 있게하는 온라인 홍보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례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는? 한국전화번호부 어플 검색과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를 연동한 다양한 인쇄마케팅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